

<2025년 9월 24일 수요일말씀>

## 할 일만 해야 육도 영도 성공한다

본 문 :

<에베소서 5장 15~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육과 영의 성공 비법 - 먼저 자기를 만들고 크게 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할 일만 해야 육도 영도 성공한다.’ 라는 주제로

육도 영도 성공하는 비법을 말씀합니다.

연속되는 깊은 말씀으로

육도 영도 꼭 성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정글같이 개발되지 않은 산길을 가다 보면

밭에 걸리는 나무나 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길 중에는 낫으로 자르고 갈 길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한번 가면 다시 못 올 길이기 때문입니다.

○ 신앙생활 하면서도

잡초와 같은 악들을 제거하고 가야 할 때도 있고,  
그냥 갈 길만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분별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 없는 일을 안 합니다.

○ 전쟁 때도 적과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방어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혹은 섭리사가 싸워야 할 것이 있고,  
그냥 자기는 굳건히 하고 갈 길만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때그때 이 두 가지 중에 합당하게 분별하고 해야 합니다.  
문제를 자세히 보면 답을 알게 됩니다.

○ 생활 속에도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제거하고  
할 일만 하고 가면  
매일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매일 온전한 삶을 삽니다.

만일 할 일을 안 하면 즉시 손해입니다.

할 일을 하면 즉시 유익입니다.

할 일인데 못 한 일은 기어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단같이 밟고 다음 계단 오르듯 할 일을 하게 됩니다.

## <영상 1> 시작

- 월명동에 돌 쌓은 것을 보세요.  
 밑에 첫 돌을 쌓지 않고서는 두 번째 돌을 쌓지 못합니다.  
 이같이 할 일을 해야 다음 할 일도 하게 됩니다.  
 이같이 해야 매일 승리의 삶입니다.

## <영상 1> 끝

- 큰일은 나누어서 1차, 2차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일할 때 자기로서는 어려워 하기 힘든 일도  
 단계를 정해 놓고 쪼개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부터 2,000m~3,000m를 한 번에 뛰려면 힘듭니다.  
 1차 1,000m, 2차 1,000m,  
 이렇게 나눠서 뛰면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일도 한 번에 크게 하려 하면 못 합니다.  
 기도도 처음부터 한 번에 3시간씩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합니다.  
 1차 1시간, 2차 1시간, 3차 1시간,  
 이같이 나눠서 하면 하게 됩니다.  
 길이 들면, 그다음에는 하루 종일 나눠서 한 것을  
 한 번에 다 하게도 됩니다.
- ◎ 몸도 마음도 단련하고 만들기에 달렸습니다.  
 제대로 만들고 써야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됩니다.

- 자기를 ‘결작 희귀 인생’ 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마음 공장에서 구상하여 만들기에 달렸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귀하게, 신기하게 만들고 살려면  
 자기 마음을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점점 커져서  
 희귀종 결작 술이나 바위나 수석같이 됩니다.

- ‘희귀종’ 이란 희귀하고 신기하고 신비한 것을 말합니다.  
 수만 개 중 하나, 수백만 개 중 하나,  
 혹은 지구 세계 전체에서 하나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어 시대에 보낸 자들은 희귀한 자들입니다.  
 1000년, 2000년, 4000년 만에 한 명씩 태어납니다.  
 그를 따라 자신을 개성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만들면 모순이 없어집니다.

## 〈영상 2〉 시작

- 월명동 하나님 전에 희귀종이 많습니다.  
 지형 모양 형상이 정말 희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구상대로 개발하니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보면서도 제대로 모르면 소경들입니다.  
 월명동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월명동의 소나무 희귀종 중에는  
 하나님이 뜻을 두고 키우신 나무도 몇 주 있고,  
 선물로 받은 소나무도 몇 주 있습니다.  
 <왕의 의자 술>, <신부술>, 월명동 구상 상징 <구상술>,  
 <기도 표적 술> 등이 희귀종 소나무들입니다.  
 사 온 소나무 중에도 희귀종이 있습니다.  
 <상징술>, <성령 사연 술>이 그러합니다.  
 나머지는 생긴 것에서 수형을 더 잡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2> 끝

- 자기가 자기를 승리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합니다.  
 적보다도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이기는 삶을 삽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면 승리합니다.
  
- 오직 ‘말씀 실천’ 입니다.  
 행해야 월명동같이 변화되어 남아 있습니다.  
 행하면 변화하고 부활합니다.  
  
 의를 행하고 불의는 행치 말아야 합니다.  
 행하는 대로 영이 형성되고 변화됩니다.
  
- 작은 일에는 작은 시간을 쓰고,  
 큰일에는 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시간이 실체를 만듭니다.  
  
 가령 두 시간 동안 소모되는 것에 시간을 쓰면  
 소모품만 얻고 끝나고,

남는 것에 시간을 쓰면 남는 존재품이 생기고,  
 영원한 것에 시간을 쓰면 영원히 남는 것이 생깁니다.  
 생각도 마음도 소모품을 생각하면 남는 것이 없고,  
 몸의 행위도 소모품을 두고 행하면 그러합니다.

개인 차원으로 시간을 쓰면 개인에서 끝나고,  
 민족과 세계 차원으로 시간을 쓰면 크게 남아집니다.  
 영 위해 시간을 쓰면 영원히 남아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자는 데 쓰면 소모품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쓰면 천 년이나 쓰입니다.  
 매일 순간순간 소모품도 필요하지만  
 이것들을 위해서는 순간의 시간만 쓰고,  
 큰 시간은 미래를 위해, 영원함을 위해 써야 합니다.  
 시간은 쓰는 대로 존재물을 이룹니다.  
 안 쓰면, 소모품이 되어 사라집니다.

- ◎ 주인은 열매를 맺을 나무와 곡식이 있는 밭과 논에만  
 잡초를 뽑아 주고, 퇴비를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대하시는 삶의 법입니다.

- 자기 행위의 열매입니다.  
 심는 대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고로 자기 삶의 행위를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잘됩니다.

-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배우고 터득하고, 건강도 살피야 합니다.

삶도 기본적인 것은 매일 해야 합니다.

농사도 장사도 공부도 건강도

매일 꾸준히 차원을 높이면서 해야

낙심하지 않고 희망대로 잘되게 됩니다.

못 한 것은 기회가 지나가기는 했지만,

또다시 하면 되기도 합니다.

실망한 것은 다른 방편으로 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행하면 됩니다.

안 하면 할 때까지 그냥 있습니다.

#### ○ 어느 민족이고

사람 심리도, 수고해서 얻는 것도 동일합니다.

개인의 마음과 몸을 길들인 대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누구나 같은 마음이어도

행실은 길들인 대로 다릅니다.

- 아무리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셔도

마음과 행위는 길들인 대로 갑니다.

#### ○ 바다의 배나 모든 존재물은 만든 대로 쓰입니다.

만물도 사람도 만든 대로 그 존재물을 대합니다.

고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잘 쓰이게 됩니다.

#### ○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는데,

악으로 의인을 괴롭히니 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한 눈으로 악하게 보고,

악한 자기 마음으로 악하게만 행합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악한 눈도 빼고, 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불로 사르십니다.

하나님은 악은 모두 불살라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말 4: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 악인은 악과 망하고,

의인은 의로 흥하여 영원한 나라를 차지합니다.

악에 속하면 사탄이 주관하고,

의에 속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 저마다 악을 멀해야 합니다.

악은 악의 길로 가니 스스로도 멀해집니다.

또한 주께서 악을 멀하러 오셨습니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하러 하심이니라”

고로 이때 온전히 의만 행하여

악과 함께 멸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 농부는 항상 잡초를 뽑아 태워 없앱니다.

그래도 또 또 악의 잡초가 나면 또 또 뽑아 불살라 없앱니다.

그러다 추수가 끝나면 모두 불사릅니다.  
악이 잡초와 같습니다.

- 자기가 행할 것은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가 집 밖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쓰레기차가 와서 실어 갑니다.
- 지금은 하나님이 개인, 민족, 세계 각 분야를  
청소하시는 때입니다.  
깨끗해야 잔치합니다.  
악한 자와 무지자는 쓰레기장이 되어 살아갑니다.  
육도 혼도 마음도 청결해야 청결하게 쓰입니다.  
흙이 없이 깨끗해야 해같이, 달같이, 지구같이 영영합니다.
- 깨끗이 해 놓으면 깨끗한 것들이 옵니다.  
상점에 물건이 있는 대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러 옵니다.  
자기를 만들어 놓은 대로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람들도 옵니다.
- 끝까지 의를 행해야 합니다.  
월명동도 끝까지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마음에 거림이 없이 축복을 주십니다.
- 오늘 말씀으로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  
육도 영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빙니다.

<말씀 마쳤습니다.>